시 론

주 홍
치유예술가

바다는 하나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답디다!"

"글믄 일본에서 쓰등가, 대통령실에서 먼저 마시고 나서 주권자에게 안전하다고 해야제!."

남광주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시장 상인들의 대화를 들었다. 광주시민들은 주권자의 권리를 잘 알고 있다.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해서 내보낸다는 도쿄전력의 말을 받아 적듯이 동의하고 발표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남광주시장 어물전 상인들은 더 걱정이다.

2021년 일본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전문가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면 연안 생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 '미래에 발생할 환경 변화에 대한 생태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조사로 환경인자 및 어패류군집의 장기적 변화를 기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는 '지진 재해-원전사고 후 후쿠시마현 연안의 어패류 군집 변화'에 대한 연구로, 후쿠시마 제1 원전에 축적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원전 오염 처리수 해양방출이 검토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일본 환경성 국립환경연구소 코다마 케이타 주간연구원의 보고서다. 즉, 방류가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 위험을 알리는 과학자들의 말도 괴담으로 치부한다.

도쿄전력은 '다핵종 제거 설비(ALPS-알프스)로 정화해서 방류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다. 그런데 정화를 해도 오염수의 70%에 세슘, 스트론튬, 요오드 등 치명적인 방사능물질이 기준치 넘게 포함되어 있었고, 그 사실도 7년 동안 감추고 있었던 도쿄전력이다. 그리고 그 이후 2차 정화 결과는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믿을 수가 없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할 한국정부는 도쿄전력을 신뢰하는 발언만 계속 내놓는다. 바다는 연결돼 있는데 말이다. 오죽하면 남광주시장 상인들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대통령실의 물과 식자재를 후쿠시마산으로 하라고 할까?

시민들의 지성 수준을 나라의 리더들이 따라가지 못한다. 과학자들을 괴담이나 퍼뜨리는 정치꾼으로 몰아가는 정치인들의 발언은 참으로 한심하다.

6월10일 민주광장에서 '2023 세계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인문예술축제가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화가들과 그림책 작가들이 '다시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걸개그림 1점씩을 그렸고, 약 80여 점의 작품들이 민주광장 바닥에 전시되고 있었다. 시민들은 열린 광장에서 그림을 감상하며 한마디씩 했다.

"일본이 방사능 똥을 바다에 싸고 있네요!"

"이건 방사능 물고기 좀비인가 봐요!"

"우리 식탁에 괴물 물고기가 올라온 그림이네요."

"방사능 물질은 눈에 안보이고 냄새도 없는 게 문제군요."

현장에서 그린 그림들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그림들이 가장 많았다. 예술은 그 시대를 반영한다.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이토록 허술하게 다루는 정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국민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잊지 마라!

바다는 하나로 연결돼 있다.

문화난장

최 래 오
들꽃작은도서관장

나의 버킷리스트, 오토바이 여행

시골살이 중 일상이 지겨워지던 어느 날 목돈이 생겼다. 갑작스런 목돈 앞에서 옛 시절의 꿈이 떠올랐다. 바이크 라이딩이었다. 그 때부터 즐거움이 시작됐다. 한 달 여 동안 검색하고 바이크 가게를 찾아다닌 끝에 원하는 바이크를 찾아냈다. 곧바로 학원에 등록했다. 50년 만에 배우는 오토바이 자격 시험은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예전의 몸과 다름을 확인하면서 잠을 설쳤더랬다. 열심히 준비하여 첫 시험에 합격했다. 합격전, 먼저 도착한 바이크를 타고 싶은 욕심에 동네에서 운전하다가 제자리에서 두 번이나 넘어져서 두려움은 더 커져갔다.

'죽지 않고 모터사이클 타는 법' 책을 읽으면서 새벽에는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동네 사거리에서 회전 연습을 하고 넓은 공간에서는 속도를 높여 갔다. '연습만이 살길이다', '오래 타는 사람이 잘 타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매일 연습했다. 오토바이를 타면서 위험하다고 말리는 사람과 함께 타자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독립군, 외로운 늑대형으로 불리는 '나 홀로' 라이딩을 즐기고 있다. 오토바이는 즐길 수 있는 시간과 경제력, 용기가 필요하다. 시간과 용기는 있는데 경제력이 없는 청년, 시간과 경제력은 있는데 용기가 없는 중년이 있다. 시간·경제력·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탈 수 있다. 라이딩 중에 만나면 낯선 사람이라도 엄지를 치켜 세우며 서로를 격려한다.

'나 홀로' 라이딩 하면서 또 하나의 즐거움은 배기음과 진동이다. 큰 행운은 나주호 주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주변에 지방도와 계곡이 많다. 계곡에서 주행 중에 느끼는 배기음과 계곡의 공명의 울림에 가끔 소름 돋는 경험을 하곤 한다. 뭐랄까, 진동과 배기음 그리고 계곡의 울림…. 마치 나만의 교향곡을 쓰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든다. 배기음의 차이를 느끼며 어느 순간 울컥한 느낌을 받는다. 1악장은 금관의 무거움으로, 2악장은 가볍고 즐거운 배기음으로, 3악장은 왈츠스타일로 더 가볍고 활기찬 배기음으로, 마지막 4악장은 환희 그 순간 풍광과 울림, 그리고 바이크와 한 몸이 돼 버린다. 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가. 최선을 다해 살아온 나에게 주는 진정한 선물인가라며 황홀감에 젖어든다.

그러다 낯선 라이더를 만나면 서로 인사하며 교감하는 즐거움이 재밌다. 60대 후반에 단순하게 오토바이를 타는 게 버킷리스트였는데 타고 보니 오토바이로 제주도 해안가를 달리는 게 라이더들의 꿈이라기에 제주도 라이딩 여행을 가게 되었다. 홀로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떠났다. 배 선적에서부터 모든 게 처음이었다. 비 내리는 날 폭우 속에 겨우겨우 라이딩 하는 중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서 뒤를 지켜주며 따라오는 승용차, 그분의 배려가 너무 고마웠다. 그 고마움을 다른 이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내가 되어야겠다고 다짐을 해보았다.

3박5일의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야간 라이딩이 조금 무리가 됐나 보다. 차가운 밤바람과 곧 어두워진다는 두려움이 겹쳐서인지 집에 도착한 후 탈진한데다가 감기몸살로 몸져 눕게 됐다.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이다. 병원에 누워서 내 상태를 점검하며 또 다른 배움을 몸으로 배웠다.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있는 곳을 벗어나 새로운 공간에서 만나게 되는 풍경과 사람들에게서 가슴 설레임을 안게 된다. 그 만남에서 느끼고 배우며 나를 더 넓혀가고 깊어가게 하는 것이 아닐까. 도보 여행은 사색 속에 깊은 여행을 하게 하고 자전거 여행은 체력을 다지며, 조금 더 먼 곳으로의 여행을 가능하게 한다. 또 오토바이 여행은 속도의 즐거움을 갖게 하며 다가오는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달리는 라이더만의 감각을 느끼게 한다. 오늘도 나는 위험을 안고 바람을 뒤로 하며 앞으로 나아간다. 살아있는 내가 너무 좋다.

독자투고

임 규 현
농협창녕교육원 교수

열악한 농촌의료, 시장 수요공급에 맡길 수 없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36조에는 이른바 국민보건권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농촌 주민들에게 이 조항은 단순히 단어의 나열에 불과하다. 내 건강을 관리해줄 의료시설이나 '의사 선생님'을 농촌 현장에서 만나기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농촌지역 의료 공백 심화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응급의료센터는 아예 찾아보기가 힘드니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를 당해서도 안된다. 병·의원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 612개 면(面) 지역을 분석해 보니 2020년 기준 병원이 한곳도 없는 지역이 538곳(87.9%)이나 됐다. 교통마저 크게 불편하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읍내까지 나가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설령 병원이 있더라도 큰 병은 치료가 불가능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서울 등 대도시 병원까지 가야 하는 형편이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거주지 외 다른 지역 큰 병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은 원정진료비는 무려 21조8559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21%에 달한다.

최근 정부는 부족한 의료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 신설보다 기존 의대 정원 확대로 방향을 잡으면서 공공의대와 지역 의대 설립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의료공백이 심각한 농촌이나 지방 소도시에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단순히 정원만 늘려서는 이들이 필수·지역 의료에 종사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지역 의대에서 장학금으로 양성한 의사는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일하게 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농촌이 대도시에 비해 의료·복지 서비스가 열악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돈이 되는 곳에 사람과 투자가 몰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서비스는 의사와 환자사이의 의료정보의 비대칭성과 누가 언제 어떻게 환자가 될지 모르는 의료수요의 불확실성, 의사만이 의료시술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공급의 독점성 때문에 시장에 완전히 맡겨놓을 수 없고, 공공의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농촌의료 공백을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로만 풀려고 하면 의료 공백을 넘어 '의료 진공'상태로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복지·교육·교통 등의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무엇보다 열악한 농촌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대 및 지역 의대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유관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농촌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고민해야 한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광주·전남 상생 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성공할 것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선8기 상생 1호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반도체 특화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특화산단은 접경지인 북구 첨단 1·3지구 일대에 '시스템반도체용 차세대 후공정(패키징)' 단지로 조성되며 지난 2월 말 산업통상부에 계획서를 제출했고, 7월 발표를 앞두고 있다.

특히 정부 공모사업을 잇따라 유치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4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공모에 차세대반도체 원천기술 개발사업이 선정됐으며, 5월은 전남대를 주관기관으로 목포대·순천대와 손잡은 지역연합이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유치했다. 또 이달에는 교육부의 반도체 특성화대학 공모에 전남대·전북대 연합이 최종 선정돼 최대 34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특성화대학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시설 및 장치 구축, 기업 협업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사업이다.

반도체 특화산단은 지역의 미래를 담보하는 현안으로 명운이 걸렸다. 반드시 유치에 성공해야 하는 것이다.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균형발전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성이 적지 않다. 국가적으로 역량을 쏟아야 하는 막중대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반도체전략회의에서 인공지능과 반도체산업의 접목까지 직접 언급했다. 앞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는 호남 경제 발전을 위해 첨단과학기술 고도화를 이루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시·도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전국적으로 15개 지자체가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광주와 전남은 즉시 착공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 기반을 갖췄고 반도체의 핵심 요소인 용수와 전력 공급도 원활하다. 분명한 비교우위다. 무엇보다 상생 발전에도 큰 힘이 실리게 된다. 반도체 단지는 지역 전반에 걸친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대한민국 핵심 공급기지로 경쟁력 강화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장기 비전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산자부의 최종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고령화 사회 운전면허 자진 반납 참여율 높여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중 하나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증가다. 면허증 반납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질 혜택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 지역상품권, 선불카드 등 인센티브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획기적으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해야 한다.

광주·전남은 도서 및 외곽지역에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대중교통 확충 등 다양한 이동수단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능력을 증명해야 하고 운전 가능한 장소·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인지지각 등 건강 상황을 스스로 정확히 파악하는 게 관건일 듯 싶다. 정부도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데,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해야 하겠다.

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0년 12만9천370명, 2021년 13만7천648명, 2022년 14만8천385명으로 매년 1만명 정도 꾸준한 증가세다. 덩달아 사고 비율도 상승하고 있다. 광주는 2020년 7.8%, 2021년 8.3%, 2022년 9.5%로 해마다 1% 가량 오르고 있다. 고령인구가 많은 전남은 2020년 19.9%, 2021년 21.9%, 2022년 22.8%로 가파르다. 반면 면허증 반납은 제자리다. 공식 집계는 않고 있으나 광주가 11.7%로 추산되고, 전남은 최근 3년 평균 2.84%에 그쳤다.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이동권 불편 문제가 해소되면 자연스럽게 면허 반납률이 높아지고. 이에 비례해 교통사고도 감소할 것이다.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선 예산 확보와 행정 지원 등의 부담이 만만찮다. 중앙정부가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장기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제도 보완에 신중을 기하면서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뒀다. 감당못할 수준으로 비용이 가중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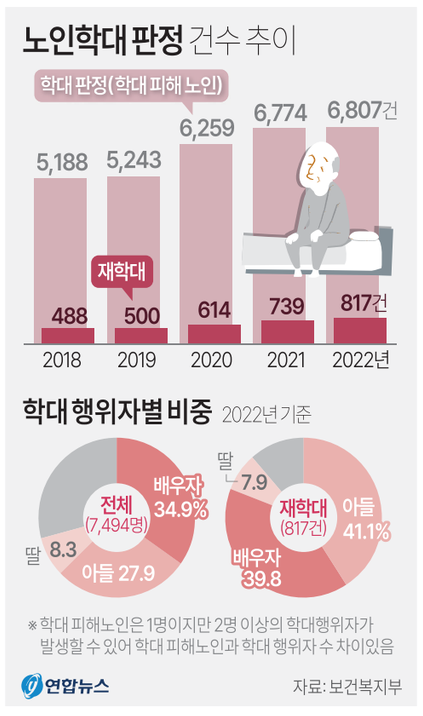
그래픽 뉴스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학대…학대 행위자는 아들 < 배우자

코로나19 장기화와 가족 형태 변화 등의 영향으로 노인학대 사례가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5일 제7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22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9천552건으로 전년보다 0.8%(161건) 늘었다. 전체 신고 중 34.8%인 6천807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 역시 전년(6천774건)보다 0.6% 증가했다. 지난해 학대 사례를 분석해 보면 배우자가 한 학대는 늘었고, 아들이 한 학대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자가 한 학대가 2천615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 중 34.9%를 차지했다. 이중 남편이 아내를 학대한 사례가 87.8%(2천295건), 아내가 남편을 학대한 경우는 320건(12.2%)이었다. 학대 행위자가 아들인 사례는 2천92건으로 27.9%를 차지했다. 학대 행위자는 2020년까지 아들이 가장 많았으나, 2021년부터 배우자-아들 순으로 바뀌었다. 배우자의 학대 건수·비중은 전년(2천455건·29.1%)보다도 늘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정치부 650-2030 경제부 650-2050 사회부 650-2040 문체부 650-2065 지역특집부 650-2060 사진부 650-2080 논설실 650-2006 TV본부 650-2009 서울지사(02) 786-9488
광고문의 650-2099 광고국 650-2072 경영지원국 650-2010 기획사업국 650-2079 업무국 650-2020
FAX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